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힘들지만 새로운 도전”



광주시립발레단 노윤정·하승수 단원
‘Preview 2023’·‘4Basic Emotion’ 안무
31일~4월1일 빛고를 시민문화관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또 다른 도전’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 노윤정·하승수 단원이 발레리나·발레리노에서 안무가로 변신한다.
광주시립발레단이 오는 31일(오후 7시30분), 4월1일(오후 3시) 두 차례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개최하는 ‘발레살롱서프Ⅱ-Ballet Curation’을 통해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지도자, 안무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레단에 입단한 지 올해로 꼭 20년을 맞는 노씨는 여러 안무가의 작품에 참여, 다양한 장르의 춤을 추면서 “난 어떤 색깔과 스타일의 안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안무에 도전했다.
“춤의 매력은 ‘호응’이라고 말하는 하씨는 “안무 작업은 내가 간직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감정과 생각, 환상을 무용수들과 함께 작품으로 만들어 관객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무용수로서 지금까지 안무가가 ‘그려준’ 틀 위에서 춤을 추다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동작을 짜며 작품을 이끌어가는 안무가에게는 무엇보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노씨가 무대에 올리는 ‘Preview 2023’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족의 위기를 모티브로 했다.
“관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일상은 좋은 소재가 됩니다. 이번 작품은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 앞으로의 삶이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만들었어요. 가족을 소재로 삼되, 그 중심을 엄마의 시선에 맞췄어요. 젊었을 때 엄마는 지금의 나와 같을까, 아니면 다들 까는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반편 하씨의 작품 ‘4Basic Emotion’은 개인의 ‘감정’에 방점을 뒀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

기 위해 잘 컨트롤해야 하는 행복, 분노, 슬픔, 사랑 등 네 가지 감정을 ‘봄날의 미소’, ‘여름의 폭풍우’ 등 사계절로 표현했다. 그는 특히 스스로 보지 못하는 각자의 뒷모습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한다. 뒷모습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감정을 담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안무 역시 테크닉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몸짓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
“모던발레는 클래식발레와는 다르게 명확히 주제를 전달해야 합니다. 안무자의 표현 방식에 따라 관객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달라지기도 하죠. 이번 작품은 이성보다 감성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고, 무용수들에게도 꾸미지 않은 자연스런 움직임을 요구했죠.”(노윤정)
“관객들이 공연에서 많은 감동을 받는데 가장 큰 몫을 하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는 노씨의 말처럼 발레에서 음악은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다. 노씨는 표현하고자 하는 스토리와 이미지를 연결,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듣고 배경 음악을 선택했다.
드뷔시, 비발디, 바흐, 리스트의 음악을 고른 하씨는 “사랑을 표현하는 음악은 참 많은데 사랑은 연민으로도 욕망으로도, 경멸로도 변할 수 있는 감정의 씨앗이기에 그런 복잡한 감정인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리스트가 제격이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단원들이 보여준 ‘진한 동료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노씨는 “바편 발레단 스케줄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도와준 단원들이 고맙

고” 말했다. 하씨는 “나를 믿고, 나를 위해 무용수들이 함께 땀을 흘려주는 동료애가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씨는 “나를 믿고, 나를 위해 무용수들이 함께 땀을 흘려주는 동료애가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씨는 “나를 믿고, 나를 위해 무용수들이 함께 땀을 흘려주는 동료애가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용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제 삶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하지만 공격적으로 안무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인생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겠지요. 음악도 많이 접해 감정의 세세함을 핏셋으로 뽑는 듯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하승수)
“이번 안무를 계기로 다양한 장르의 춤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채로운 작품에 도전하는 무용수이자 안무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흔 일곱 발레리나로 전성기는 아니지만 발레단 안에서 선배로서 귀감이 될 수 있는 무용수이자 안무가가 되고 싶습니다.”(노윤정)
한편 이날 공연에서는 초청 안무자 정형일의 작품 ‘Two Feather’도 함께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

상금 2000만원, 31일 시상식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이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금 2000만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일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이자 국내 미술평론가 1세대인 석남 이경성 선생(1919-2009)의 업적을 기리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제10회 수상자로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 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성 선생 타계 후 후학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제정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국내 대부분 미술상이 작가를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 반해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에 업적이 현저한 연구자, 평론가, 미술행정가 등에게 수여된다.
이경성 선생 타계 후 후학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제정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국내 대부분 미술상이 작가를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 반해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에 업적이 현저한 연구자, 평론가, 미술행정가 등에게 수여된다.
올해 수상자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열 미술평론가)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영순 전 부산시립미술관장)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이지호 관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석사학위를 전공하고 프랑스 파리 1대학에서 조형예술학(미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후 대전시립 이응노미술관장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대전시립미술관장을 역임하며 미술현장에서 대중들과 예술적 경험을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9년에는 프랑스 문화공보부 문화예술공로 훈장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전남도립미술관에서 퐁피두센터와 함께



이지호 관장

‘조르주 루오’전을 개최했다.
심사위원회는 “지역 미술관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 예술 문화 확대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해외 유명 작가 전시를 지방에 유치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한국 관련 전시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과 세계 미술관과의 성공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한 점”이 수상 이유라고 밝혔다.
이지호 관장은 “이응노미술관장으로 재직 당시 해외에 산재한 이응노 작가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구술 채록하는 등 아카이빙에 힘을 쏟은 점과 해외전시회를 기획한 점을 평가한 것 같다”며 “남도 출신 많은 작가들의 작품과 자료를 정리하고 아카이빙해 지역 미술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또 “지역 작가 등 국내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인천시립박물관 로비에서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이경성 선생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최열, 이은다(이경성 선생님 딸)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사 첫날 잃어버린 곰곰이를 찾아라

ACC 재단, 4월 8~9일 어린이문화원

새 아파트로 이사 온 날 파니는 안타깝게도 인형 곰곰이를 잃어버린다. 평소 너무 아끼는 인형이라 속이 상한다. 파니는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는 엄마 말에 속히 밖으로 뛰쳐나온다. 순간 슬데없고 지저분한 것들을 수거해간다는 수레 할아버지가 곰곰이를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파니는 할아버지의 고물상에서 경중이와 움짤이 형제를 만나게 되고, 아이들은 함께 곰곰이를 찾아 나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의 가치들을 생각하게 하는 어린이 인형극이 찾아온다. 작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창작한 인형음악극 ‘칼칼나무’ (사진). 지난 2015년 초연 이후 전국에서 공연되면서 ACC 대표 어린이공연으로 자리잡았으며 지난해와 올해 초 서울 투어를 마쳤다.
ACC 재단은 오는 4월 8~9일(오전 11시, 오후 3시) 어린이문화원에서 영상과 오브제의 조화로운 만남을 그린 인형음악극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인형극은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제작돼 어린이는 물론 가족 모두가 관람하기에 좋은 작품이다. 관람권은 1만5000원이며 ACC 누리집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작품은 기차 엔진을 달은 커다란 무대 장치가 인상적이다. 인형극의 무대가 되거나 벽이 되거나 스크린으로 변하기도 하는 테이블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목각 인형의 섬세한 움직임과 음악, 영상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ACC 재단은 “이번 작품은 오브제를 영상과 결합해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살린 게 특징이다”며 “복합 멀티 미디어 장르 인형극의 장점을 살려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민화 속 옛 여인들 ‘미인도’

비움박물관, 24일~5월6일 봄 기획전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선조들의 삶의 모습과 지혜를 접할 수 있는 민속품을 3만여점 넘게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상설전과 함께 봄여름 가을겨울 사계절에 맞춰 기획전을 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봄 기획전의 주제는 ‘미인도’다. 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민화 중 옛 여인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그린 ‘미인도’와 여성들이 쓰던 자수 베개 등 10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넉넉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정성으로 가정을 꾸리며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미인도를 만날 수 있다. 한복 소매를 걷어 부친 채 회의를 듣고 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 등 생활 속 여인의 모습이 다.

또 생활을 연주하고, 단장을 하고 나들이에 나서는 모습, 연지끈 찢고 결혼하는 여인 등도 눈길을 끈다. 어떤 작품들은 구도와 비례 등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름 없는 누군가가 그렸던 작품에서는 소박함이 느껴진다. 전시에서는 북한 작가의 ‘미인도’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비움박물관 1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개막 당일인 24일에는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이영화 관장은 “한반도 반만년 역사 속에서 불과 반백년 만에 ‘미인도’가 낯설기만한 문명시대가 됐다”며 “우리가 놓고 온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답하는 봄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507-1431-66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미인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10종 선정

대한출판문화협회가 ‘2023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10종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공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8종이 접수됐다.
아름다운 책 10종에 선정된 책은 ▲아카이빙북 ‘1-14’, ▲매거진 ‘them 2호’, ‘유용한 바보들 issue 0’, ▲에세이 ‘각자 원하는 달콤한 꿈을 꾸고 내일 또 만나자’, ‘뽕가 먼저냐’, ‘살라리노 미니모’, ▲그림책 ‘토끼전’, ‘머니네 집지킴이’, ▲악보집 ‘비정량 프렐류드’ 외, ▲시집 ‘사랑하는 소년이 열을 밑에 살아서’ 외 등이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에서 “아름다운 책이란 무엇일까? 맥락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공모에서는 대체로 ‘잘 만들어진 책’을 뜻한다”며 “텍스트를 독자

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물성’과 독서 경험이 잘 만들어진 책’이다. 조화로운 구성, 심미성과 독창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작 10종 가운데 대상에 해당하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은 오는 6월 14~18일 서

울에서 열리는 ‘202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들은 독일 북아트재단과 라이프치히 도서전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 북디자인 공모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 출품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북구 도시브랜드 개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 북구가 새로운 이미지 정립과 차별화된 도시마케팅을 위한 도시 브랜드를 개발한다.
광주시 북구(청장 문 인)와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오는 4월 20일까지 ‘북구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역 정체성과 미래 비전 등을 담은 광주 북구의 도시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참신한 브랜드 슬로건(네이밍)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북구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 달 도시브랜

드 및 캐릭터 개발 위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오는 8월까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후 9월 중 광주 북구의 새로운 이미지와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슬로건 공모에서는 북구의 특성과 매력, 발전 비전 등을 함축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구(10자 이내)를 선정한다.
1명이 2건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창의성, 상징성, 대중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상금 50만원), 가작 10건 등을 선정·시상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